THIS IS GLOBAL LIFE

the traveller

2011
01

HOKKAIDO WINTER VACATION

이구아수 폭포에 슬픔을 던져라

홍콩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생긴 일

부티크 호텔의 거장이 하와이에 호텔을 짓는다면

곶자왈을 아시나요

새해, 서울 일출 명소 6선

和+MODERN KYOTO

오래전 일본과 미래의 일본, 그 어디쯤의 교토

PARIS GUIDE

젊은 파리, 에티엔 마르셀 스트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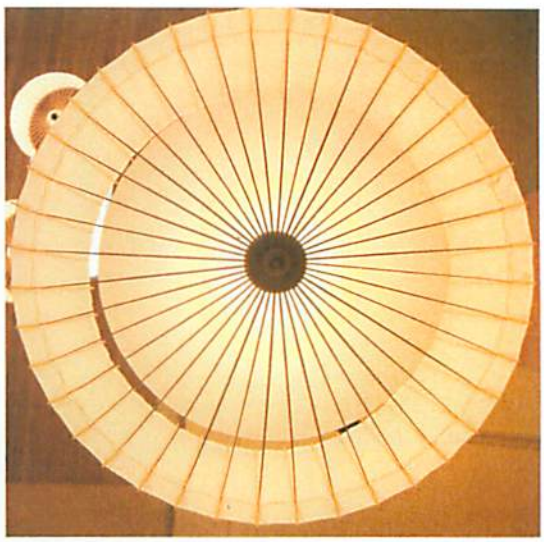
파리 요리평론가와의 인터뷰, '내가 사랑한 레스토랑'

파리로 간 슈즈 디자이너의 슈즈 쇼핑기

7,000

"전통이 현대에 설득력을 얻기 위해선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전통'이라고 무조건 너그러운 시선으로
단점을 감싸주지 않아요. '내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 앞에 있던 것이 지금의
고토리입니다."
NISHIBORI
KOTARO

촘촘한 빗살 사이로 은은한 빛을 내뿜는 고토리.



고토리의 특징은 어느 각도에서 봐도 아름답다는 것이다.

오래된 가게의 모험 니시보리 고타로

니시보리 고타로의 모험이 없었더라면 일본의 전통 우산 '와가사'는 흔적을 감췄을지도 모른다. 더불어 와가사가 잉태한 아름다운 램프 고토리도 빛을 발할 수 없었을지도.

교토의 우산 장인으로 유명한 히요시야Hiyoshiya 가문의 1대 장인이 천국에서 니시보리 고타로를 본다면 이런 말을 할 게 분명하다. "잘 키운 사위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니시보리 고타로는 쇠락의 길만 남은 일본 전통 우산 공예의 흥망을 완전히 역전시켰다. 그가 전통 우산의 원리를 응용해 만든 램프 고토리Kotori는 교토 역, 이세탄 백화점 등 교토를 대표하는 플레이스를 장식할 만큼 유명하다.

교와가사 히요시야는 일본의 전통 우산 와가사Wagasa를 만드는 공방이다. 공방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원래 다도로 유명한 곳이었다. 야외 다실을 꾸밀 때 와가사를 양산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문의 공방이 운집해 있었단다. 시대가 변하고 다도 문화가 쇠락하면서 와가사 산업도 함께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그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와가사 공방이 교와가사 히요시야다.

히요시야 가문에 입성한 니시보리가 다른 청년처럼 전통에 별다른 흥미가 없었다면 교토 와가사 공방의 역사는 끝났을지도 모른다. 대학 시절 캐나다 토론토에서 유학 생활을 한 그에게 외국인 친구들이 일본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물으면 그는 뾰족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이 작은 충격은 평범한 청년에게 전통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었다. 히요시야 가문의 사위가 된 니시보리는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교와가사 히요시야를 이어받았다. 새로운 시선과 비상한 아이디어로 그는 사라져가는 와가사를 다시 살리는 데 전력을 쏟았다. 결과는 좋았다.

기모노 차림을 완성하는 패션 액세서리에 불과하던 와가사를 실용적인 우산으로 변모시키는 데 성공한 니시보리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골조가 튼튼하고 잘 접히며 빛이 은은하게 투과하는 와가사의 장점을 무엇에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그의 머릿속에 '램프'라는 단어가 섬광처럼 지나갔다. 유레카! 근 1년 동안 니시보리는 뜻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와가사의 구조와 소재를 응용한 램프 만들기에 몰두했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지금의 고토리가 탄생했다.

"처음엔 기존의 와가사에 등만 달아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램프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주문량이 거의 없었죠.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통이 현대에 설득력을 얻기 위해선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해야만 한다는 사실도요. 사람들은 '전통'이라고 무조건 너그러운 시선으로 단점을 감싸주지 않습니다. '내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 앞에 있던 것이 지금의 고토리입니다."

니시보리는 고토리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높은 천장에 고토리가 별처럼 총총 매달려 있었다. 다양한 디자인의 고토리를 꺼내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아끼는 '건담' 프라 모델을 조심스럽게 꺼내 자랑하는 천진한 수집가 같았다. 니시보리가 고토리를 처음 완성했을 때 느낀 것처럼 나도 고토리를 갖고 싶었다.

"사람들은 전통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켜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통은 늘 깨져왔어요. 그게 바로 전통의 본질입니다."

깨진 전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면 수백 번도 더 깨졌으면 좋겠다. 전통과 현대가 혼재하는 와모던은 사실 전통을 깨뜨리는, 깨뜨림으로써 지키려는 시도인지도 모른다.

와모던을 소유하는 경험

여행의 꽃이 쇼핑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와모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 역시 쇼핑이다.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와모던 아이템을 모았다.

和+MODERN SHOPPING

교와가사 히요시야 « 램프가 된 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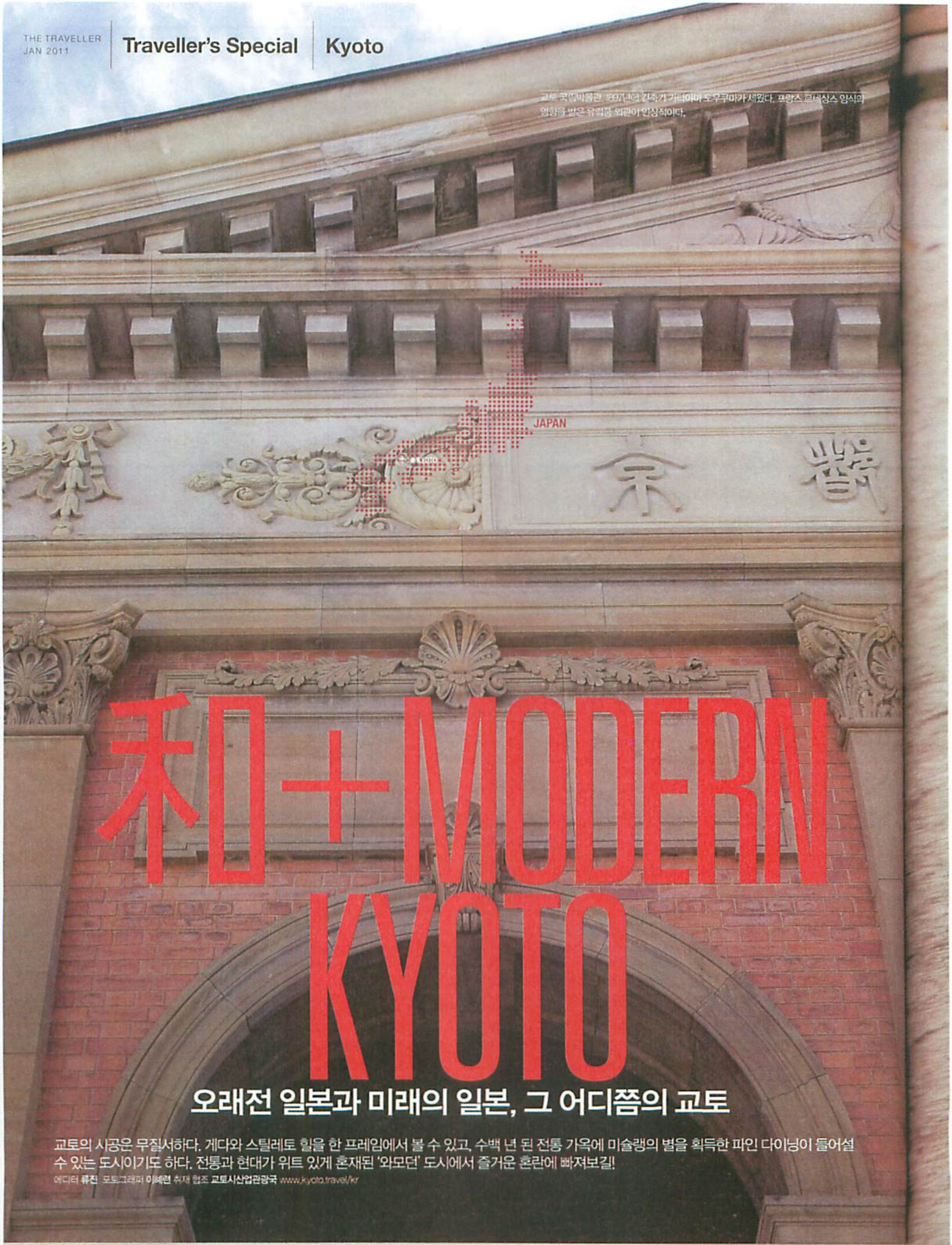
일본의 전통 우산 와가사는 비를 피하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기모노 패션을 완성하는 액세서리나 야외에서 다도를 즐길 때 양산으로 활용하던 와가사는 시대가 변하면서 존재 가치가 희미해졌다. 와가사 장인 니시보리는 와가사를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변모시키고자 램프 '고토리'로 변신시켰다. 기품 있는 꽃 문양이 새겨진 창호지로 만든 갓 안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이 램프는 일본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차례 상을 탈 만큼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다. 유럽과 미국, 호주 등지의 인테리어 숍 바이어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www.g-gate.com, 02-587-6009). 교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좋다. **LOCATION** 546 Dodo-cho, Teranouchi, horikawa-higashiiru, Kamigyo-ku **TEL** +81-(0)75-441-6644 **WEB** www.wagasa.com

스페라 » 럭셔리 와모던의 진수

스페라의 제품은 일본 장인의 작품에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디자인됐다.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식기, 인테리어 소품, 주방용품, 가구들은 디자인이 극도로 단순하다. 나무, 도자기, 청동 등 재료의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디자인도 특징. 스웨덴 건축가 그룹 클라에손 코이비스토 루네가 디자인한 건물은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 1층에는 카페 '세세라기 스페라', 1층에는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스페라 숍, 2층에는 갤러리와 아트 북 숍, 3층에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바 '사토나카'가 들어서 있다. 교토뿐 아니라 도쿄 롯폰기 미드 타운과 밀라노에도 분점을 두고 있다.
LOCATION Sfera Bld. 17 Benzaiten-cho, Nwate-shinbashi-nishigawa, Higashiyama-ku **TEL** +81-(0)75-532-1105
WEB www.ricordi-sfera.com

카페 큐브&아트 큐브 « 미술관 속 와모던

호소미 미술관에서 와모던 아트를 즐기는 두 가지 방법. 첫째는 일본의 유명한 한지 공예가 호리키 에리코의 작품이 걸린 카페 큐브에서 작품을 감상하며 이탈리안 요리를 즐기는 것이다. 바로 옆에 자리 잡은 디자인 숍 아트 큐브에서는 일본의 세련된 전통 아이템을 쇼핑할 수 있다. 앙증맞은 무늬가 새겨진 패브릭으로 만든 각종 문구와 인테리어 소품, 향, 엽서 등의 컬렉션은 엔화 환율이 올라도 부담 없을 만큼 합리적인 가격대다.
LOCATION 6-3 Saishoji-cho, Okazaki, Sakyo-ku
TEL +81-(0)75-752-5555 **WEB** www.emuseum.or.jp



교토 국립박물관. 1897년에 교토가 가진 10마 도우쿠마가 세웠다. 프랑스 르네상스 양식의 영향을 받은 유럽풍 외관이 인상적이다.

和+MODERN KYOTO

오래전 일본과 미래의 일본, 그 어디쯤의 교토

교토의 시공은 무질서하다. 게다와 스틸레토 힐을 한 프레임에서 볼 수 있고, 수백 년 된 전통 가옥에 미슐랭의 별을 획득한 파인 다이닝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전통과 현대가 위트 있게 혼재된 '와모던' 도시에서 즐거운 혼란에 빠져보길!

에디터 **류진** 포토그래퍼 **이혜련** 취재 협조 **교토시산업관광국** www.kyoto.travel/kr